



추석 앞두고
먹거리값 인상
물가 '비상'
니

metro®

Life

가을옷 검색↑
패션업계
수요선점
L2



친환경 소재 늘리고, 꿈에 날개 달고... 첨단소재로 빛은 가치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HS효성

HS효성이 친환경 소재 개발부터 장애인 자립과 문화예술, 보훈 활동까지 사업 역량과 연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HS효성은 지난 6월 그룹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경영 방향을 구체화했다. 지속가능경영 비전으로 'Rooted in Value, Growing Together(가치를 근간으로, 함께 성장하는)'를 제시하고 ▲성장 가치 ▲공유 가치 ▲신뢰 가치를 3대 전략 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고객만족과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친환경 포트폴리오, 기후변화 대응 등 5개 중요 이슈를 선정해 그룹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친환경 소재와 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재활용 원료·고강도 소재...친환경 확대

HS효성은 첨단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저탄소순환 포트폴리오 전환에 나서고 있다. 기존 석유화학 기반 원료를 재활용 원료로 대체하고 제품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식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코드와 스틸코드, 비드와이어 등 타이어보강재를 비롯해 산업용사와 자동차용카펫 등에 재활용 원료를 적용하는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 원료 기반 제품은 전과정평가(LCA)를 통해 일반 소재를 사용한 동종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관련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도 마쳤다.

재활용 PET를 97% 적용한 산업용사는 국제 재활용 인증인 GRS(Global Recycled Standard)를 취득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을 확대해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낮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1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2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 선수에게 탄소섬유 의족을 전달하고 있다.



소재 자체의 성능을 높여 원료 투입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UHT(Ultra High Textile) PET 타이어코드와 테데니어 타이어코드, UT(Ultra Tensile) 스틸코드 등 고성능·고강도 제품을 개발해 기존 제품보다 원료 사용량을 줄이고 타이어 경량화에 기여하고 있다.

HS효성은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룹 공통 기준인 'Global SHE 지침'을 수립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자원순환형 신성장 동력 확보', '판매 포트폴리오 전환'의 세 가지 축으로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부터 문화예술까지...장애인 자립·사회참여 지원

HS효성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회사가 보유한 첨단소재 기술을 활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 선수에게 지원한 맞춤형 탄소섬유 의족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3월 전북대학교병원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함께 제작한 탄소섬유 의족을 박 선수에게 전달했다. 의족제작에는 HS효성첨단소재의 고강성·고

첨단소재 사업 중심 저탄소 전환 나서 타이어코드 등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 소재 성능 개발로 원료 투입량 줄여

첨단소재 기술력 활용한 장애인 지원 사이클 선수에게 탄소섬유 의족 제작 장애인 위한 체육·문화활동 펼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마라톤 '815런' 후원... 임직원 동참 현충원 정화활동 등 호국보훈 실천

탄성 탄소섬유와 복합재료연구팀이 개발한 고성능·무독성 프리프로그 수지 기술이 적용됐다. 여기에 전북대학교병원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 성형·가공 기술도 접목해 무게를 줄이고 박 선수의 신체 구조에 맞춘 의족을 제작했다.

중증 장애아동과의 인연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중증 장애아동 요양시설 '영락에니아의 집'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임직원들은 평소 야외 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들과 일대일로 짝을 이뤄 체육 프

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했다. 후원금은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용 이너시트 교체와 특수 재활기기 구입, 시설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예술의전당에서 장애·비장애 통합 실내악 연주단 '가온 솔로이스츠'의 제7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정경'이 열렸다. 가온 솔로이스츠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무대에 선다는 취지로 2021년 설립됐다.

◆나라 위한 헌신 기억...보훈 나눔 이야기

HS효성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위한 보훈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생필품 지원부터 현충원 묘역 정화,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달 광복절을 맞아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열린 한국해비타트의 기부 마라톤 '2026 815런'을 후원했다. 지난 2024년부터 3년째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임직원들도 직접 행사에 동참했다.

815런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시작된 행사다. 참가비와 기업 후원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주택 건립과 보수에 사용된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나눔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HS효성은 지난 2015년부터 서울남부보훈지청을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와 재가복지대상자에게 '사랑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들도 보훈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HS효성 임직원 20여명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독립유공자와 임시정부 묘역 일대에서 묘비 닦기와 잡초 제거 등 정화 활동을 펼쳤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실천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3 HS효성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4 HS효성첨단소재가 광복절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열리는 한국해비타트 '2026 815런'을 3년 연속 후원했다.



/HS효성

메트로 한줄뉴스



▲'회오리 감자' 롯데 손성빈, 7월 월간 씬-스틸러 상 수상
▲김세영, LPGA 투어 CPKC 여자오픈 3위...야마시타 시즌 2승
/사진 뉴스스

▲'안세영 선봉' 한국 배드민턴 전성기 활짝...세계선수권 종합 1위 달성
▲오타니, 다음 주 홈에서 선발 복귀 가능성 ↑...실전 빌드업 예정

▲U-18 농구 대표팀, 뉴질랜드에 잡혀 아시아컵 4위 마무리
▲임성재, 8년 연속 PGA PO 최종전 무산...김시우·김주형은 진출